

한국양궁, 지난 60년의 발자취 회고

양궁협회, 60주년 기념행사 열고 공감·화합의 장 마련
정의선 협회장 “공정·투명 앞세워 사회적 역할 해야”

대한양궁협회가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 동안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감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1일 광진구 그랜드 워커힌 서울에서 양궁 관계자, 후원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의선 양궁협회장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양궁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한 협회 임직원, 심판, 양궁의 미래를 육성해주시는 실업팀과 학교 관계자, 믿고 응원하는 후원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여기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1963년 국제양궁연맹 가입이 한국 양궁의 시작이다. 협회는 1983년 설립됐다. 양궁은 명실상부 한국 스포츠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만 무려 27개다. 은메달도 9개, 동메달도 7개다. 동계 종목의 쇼트트랙(금메달 26개)을 앞선다. 아시안게임에선 통산 금메달 46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19개를 수확했다. 정 회장은 “양궁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지금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했다. 1963년부터 지금까지 지킨 핵심 가치는 공정성과 투명성, 경쟁자에 대한 배려, 노력과 헌신”이라며 “한국 양궁을 이끈 역대 모든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 회장의 부친인 정몽구 협회 명예회장은 1985년 협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양궁의 저변확대와 인재 발굴, 장비 국산화 등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이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 회장은 부친에 이어 2005년부터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우리의 핵심 가치 위에 혁신에 앞장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최첨단 장비와 기법으로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가까이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보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중에 더욱 가까이 다가야 한다”며 “협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지도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 회장은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건 더 힘들다. 모두가 정말 대단하다”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든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일인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스포츠가 가진 가치의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와 좋은 열을 수 있는 기쁨도 크지만 양궁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할 수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힌 서울에서 열린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며 “(여러분은) 국가대표 선수이자, 외교관이자, 대사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라”고 당부했다. 60년 역사에 크게 공헌한 양궁인들에게 공로패를, 여러 분야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있었다. 공로패는 행정부, 지도부, 경기부 등으로 나뉘어 총 41명에게 전달됐다. 1960년대말 한국에 양궁 보급을 시작

한 수도였고 체육교사 고 석봉근 씨를 비롯해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 오진혁(현대제철) 등이 포함됐다. 감사패는 국군체육부대를 비롯한 총 32개 단체가 받았다. 행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정부·유관 단체 인사 및 양궁 원로, 메달리스트, 국·내외 지도자, 대표선수, 후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전북특자도민체전 상징물 선정

내년 9월 순창서 개최... 엠블럼·마스코트 등 4개 부문
8일까지 입상 후보작 공모 통해 이의 신청 접수 후 수정

내년 9월 순창군에서 열리는 제 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상징물이 최종 선정됐다. 순창군은 지난달 28일 영상회의실에서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열어 내년 도민체육대회에 사용될 상징물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응모한 대회 상징물 152점(포스터 4점, 엠블럼 8점, 마스코트 4점, 슬로건 136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과 가작 등 총 8점이 선정됐다. 포스터는 역동적인 그래픽 웨이브 위에 선수들의 열정과 체전의 다이내믹함을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고, 엠블럼은 장류를 상징하는 장독과 육상선수를 모티브로 역동



내년 9월 순창군에서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엠블럼(사진 왼쪽)과 마스코트. (사진=순창군청 제공)

적인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 최종 선택됐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순창군의 전통음식인 고추장 고추를 모티브로 하여 성화를 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슬로건은 ‘행복담는 순창에서, 함께하는 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김영식 순창부군수는 “내년 체육대회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 치르는 첫 대회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도민체전이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작품들은 오는 8일까지 입상 후보작 공모를 통해 이의 신청 접수 후 수정·보완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상징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마스코트 12년 만에 재활용

카타르 사막 서식 설치류... 2011년 대회 때 제작

내년 1월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카타르가 마스코트를 12년 만에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아시아축구연맹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마스코트는 카타르 사막에 서식하는 설치류다. 설치류를 의인화한 아버지 즈크리티(초록)와 어머니 트라에네(보라), 딸

프레하(빨강), 아들 사부그(파랑), 아들 트브키(노랑)로 구성됐다. 이름은 카타르 각 지역에서 유래했다. 이 마스코트는 2011년 카타르에서 열렸던 제 15회 대회를 앞두고 디자이너 아흐메드 알 마디드가 만든 것이다. 12년 만에 다시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재차 마스코트로 활용된다. /뉴시스



이번 대회는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 도하, 알라이안 등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뉴시스

프로배구 2라운드 MVP 선정

도드람 2023~2024 V-리그 2라운드 MVP로 남자부 한국전력의 임성진과 여자부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선정됐다. 임성진은 기자단 투표 31표 중 11표(요스바니 6표, 타이스 5표, 정한용 3표, 마테이, 비에나 각 2표, 신영석 1표, 기권 1표)을 획득했다. 김연경은 기자단 투표 31표 중 총 11표(실바, 모마 각 8표, 김다인, 임명옥, 엘레나 각 1표, 기권 1표)를 획득했다. /뉴시스

“운영 자율성 보장하라”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서 대정부 결의문 발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운영 자율성 보장 요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운영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뜻을 담은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의 적법한 결의절차를 거친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육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성토했다. 또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스포츠분야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스포츠 외교역량 강화와도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 사업을 문체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정관 허가 지연 건과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 지연의 건에 대해 국회,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 요청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뉴시스

